

## 건협,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망” 심포지움

건협 32주년 창립 기념으로,  
장용준 부장 등 30년 장기근속 표창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망”에 관한 심포지움이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32주년 기념으로, 지난 11월 7일 서교호텔에서 있었다.(관련기사 6쪽)

이날 심포지움에서, 임한중 회장이 좌장을 맡은 제 1부 건강관리사업평가에서는 서울의대 조한익 교수가 이 주제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건협 허윤영 기획부 차장과 김정현 사업과장이 지정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관리사업 전망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인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제 2부 21세기 건강관리와 국민건강증진방향에서는 건강관리사업의 방향(서울의대 안윤옥 교수), 건강증진사업의 외국사례(연세의대 서일 교수), 국민건강증진의 실행방안(서울의대 유태우 교수), 국가 보건정책의 방향(보건복지부

박기준 보건정책과장) 등에 관한 발표와 함께 남서중 건협 사업부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건협 임한중 회장, 권이혁 전 학술원 원장, 건협 성정웅 사무총장, 박기준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건협 임직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관련 학계 교수, 유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 심포지움은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단체의 역할제고 및 건강증진사업의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 앞서 있었던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임한중 회장은, 『오늘 이 심포지움이 단순히 협회 창립 32주년 기념의 행사가 아니라 협회가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원을 이루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신해서 치사를 한 박기준 보건정책과장과 격려사를 한 권이혁 전 학술원 원장은 각각, 『지난 30여년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공익 보건의료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0년, 20년, 10년간 협회에 장기 근속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해 온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30년 근속 : 장용준(본부 총무부장), 이홍량(서울지부 사무국장), 하성미(부산지부 사무국장)
- ◎ 20년 근속 : 정병교(본부 사업추진역), 김연태(강원지부 대리),
- ◎ 10년 근속 : 서영준(경기지부 서무과장)외 12명

◀30

### 서울·경기지부, 협회 창립 32주년 기념 시민무료검사

서울지부는 지난 10월22일~24일까지 협회 창립 32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당뇨(혈당)검사 및 혈액형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그랜드마트 앞에서 있었던 이 행사에서 서울지부는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당뇨병(혈당), 혈액형 검사,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서울지부는 또, 지난 10월20

일 용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용두문화제에 참가해서 3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문화제 행사 중 행운권 추첨

을 통해 10명의 주민에게 무료 종합검사권을 증정했다.

한편 경기지부도 창립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4일부터 3일간 수원 남문 뉴코아백화점 10층 이벤트 홀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혈당·혈액형·고혈압 검사, 비만도 측정, 건강상담 등이 이루어졌던 이날 무료검진에서 700여명의 수원시민이 검사를 받았다.

## 건협 성정웅 사무총장, 제 6대 담양읍 향우회장 맡아

지난 11월 3일,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국건강관리협회 성정웅 사무총장이 제 6대 재경 담양읍 향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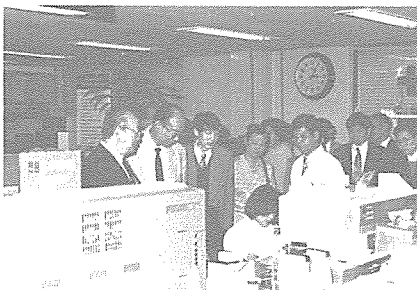
지난 11월 3일에 회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던 재경 담양읍 향우회 정기총회의 새 임원진 선출에서 이같이 선임된 것.

신임 성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임 회장님들과 같은 담양읍의 일꾼으로서 담양읍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히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당부했다.

## '96. 한·중 기생충 학술 Work-Shop 개최



▲ '96 한·중 기생충 학술 Work-Shop



◀ 중국 보건관계자들이 협회를 방문, 서울지부 검진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96. 한·중 기생충 학술 Work-Shop이 지난 11월 14일부터 이틀간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있었다.

KOICA의 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이 Work-Shop에는 임한중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馮正(Feng-Zheng) 중국 예방의학과학원기생충 연구소장, Dr. Godal WHO 열대병조사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관계관을 비롯해 우리 나라와 중국, WHO, 콜롬비아 등의 기생충 관련학자 및

관계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Work-Shop에서는 지난 6월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 2개 마을에 대한 기생충 감염 공동 조사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보길도 폐흡충증 관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의 효과적 기생충관리를 위한 공동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이 Work-Shop에 앞서 馮正(Feng-Zheng) 소장을 비롯한 중국보건관계자 12명이 우리나라 기생충관리 및 국민건강증진 사업 현황을 돌아보기 위해 11월 6일 내한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강원·대구·충북 지부 등과 가톨릭의대·서울의대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 대전·충남지부 정순덕 검사소장, 정도관리 우수기관상 수상

대전·충남지부 정순덕 검사소장이, 임상검사 정도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로부터 삼광 SRL QC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정도관리협회 QC 참여기관 중 200병상 이하 정도관리 우수기관 2개에 대해 삼광 SRL에서 제공하는 상으로 정도관리협회가 수여한다.

시상식은 지난 11월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있었던 정도관리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있었다. 한편 정 소장은 부상으로 '97년에 5일간 일본 연수를 할 예정이다.

인천지부, 무의탁노인, 저소득 주민 등 무료 검사

인천지부는 지난 10월14일, "노인을 위한 노아의 집"(인천시 남구 도림동 소재)에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흉부X-선, 혈압, 혈액, 소변, 심전도 검사 등 무료검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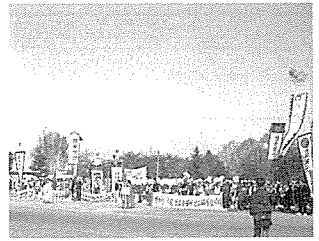
인천지부는 또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 한달동안 관내 저소득층 주민 및 생활보호 대상자 중 35세~60세 미만 주민중 검사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궁암 무료검사를 실시했다.

## 전북지부, 전북농협지역본부 체육대회에 의료반 지원



전북지부는 지난 11월 3일 전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전라북도 농협 지역본부 체육대회에 의료반을 편성, 지원했다.

이날 전북지부는 검진버스·



앰블런스 와 채호범 관리의사를 비롯한 6명의 의료 지원반을 운영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는 농협 직원과 가족 등 4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 전국의 보건교육담당자, 한 자리에

'96. 전국 보건교육담당자교육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전국 보건교육담당자 교육이 지난 11월13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있었다.

전국의 일선 보건교육담당자, 국민건강증진법령 담당자, 보건복지부 및 건협 시도지부 관련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활성화와 제도적 접근 등 보건교육방향에 대한 강의와, 실시 1년을 맞은 국민건강증진법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 첫날 개회식에는 건협 성정웅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박기준 보건정책과장, 강원도 박수준 환경보건국장 등이 참석해 이번

교육을 축하해 주었다.

이날 성정웅 사무총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임한중 회장은, 『지금까지 일선 보건교육담당자와 건협이 맺어 온 돈독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여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상호 협조를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 김진선 부지사를 대신해 환영사를 한 박수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보건교육담당자 교육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모색되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박기준 보건정책과장도 『시행 1년째를 맞은 국민건강증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좋은 의견이 이번 교육을 통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또 일선보건교육담당자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한 거듭나기 행군(등반대회)과 진선도모를 위한 화합의 밤 행사 등도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상호 협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주기도 했다.

한편 교육 마지막날 강평을 통해 성정웅 사무총장은, 『WTO 출범, OECD 가입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한 여러가지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 시점에서, 일선 보건교육담당자와 보건단체들은 정부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의 적극적 수행을 비롯한 보다 발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쪽)